

왕비의 극락왕생까지도 바랬던 태조 이성계의 사랑

왕의 사랑으로 창건된 흥천사(興天寺)

벌써 50년 가까이 서울과 그 주변에서 살았다. 60년대 서울은 전철이 다녔고,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70년대 고궁과 왕릉은 단골 소풍지였다. 왕릉에 가선 누구의 능인지 모른 채 김밥을 먹고, 궁궐에 가선 언제 창건된 궁인지 모른 채 사생대회를 했다.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서울은 옛날부터 수도로 꼽혀온 길지였다. 오죽하면 신라 진흥왕이 100년이 넘게 지속된 백제와의 동맹을 깨면서까지 이곳을 차지하려 했을까. 또한 고려시대에, “북쪽으로 화산[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했는데, 토지가 평평하게 펼쳐졌으며, 백성이 많고 물산이 풍부하며, 변화하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울이 실제 수도가 된 것은 조선이 세워진 뒤이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경에서 즉위했으나 분위기를 쇄신할 겸 천도를 계획했다. 새 서울을 새 부대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역성혁명이라 하지만 승리가 있다면 패배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패배자를 따르는 무리와 민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힘에 눌려 잠자코 있지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힘을 피하고자 했을 것이다. 태조는 즉위 3년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漢城府)라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서울은 수도로서 6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불교를 배척했다. 불교계는 그런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힘든 역경도 많았지만 민심 저변에 자리한 신앙심은 찬란하진 않아도 담담하면서 성숙된 불교문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시대 탓인지 몰라도 어지간히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울에 존재하는 불교문화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알기 힘들다. 그리고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그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미천한 지식이지만 붓을 들어 불교문화의 가치를 적어보려 한다.

서울이 600년이 넘는 수도인 까닭에 불교문화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흥천사를 꼽은 것은 창건에 담겨진 왕의 사랑 때문이다. 조계사나 봉은사와 같은 큰 사찰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눈물을 자아낸 테마가 아닌가. 대중가요 제목에도 사랑이 가장 많은 것도 대중들의 마음이 사랑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청춘들이 사랑이란 두 글자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폭발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그리고 평민이던 귀족이던 이성애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왕이라고 없었을까. 여염집 사람



흥천사는 600년 넘는 조선시대 서울의 불교문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흥천사 극락보전

조선 건국 4년만에 왕비 잃고 애절함에 정릉 조성한 이성계 도성안에 흥천사도 지었으나 방화로 전소됐다 이진·축소돼

처럼 또는 현대인들처럼 내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 남자인지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무인이다.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며 성장했고, 왜구들을 물리치는 전장에서 생활한 백전노장이다. 그런 그에게도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 그에겐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姜氏)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즉위 한 해 전 죽었고, 둘째 부인만이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녀는 건국이란 힘든 시기를 함께 해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왕비가 된지 4년 만인 태조 4년(1395)에 죽었다. 조강지처를 잃은 태조는 안타까운 마음에 능을 경복궁

서남쪽 가까이 조성하고 정릉(眞陵)이라 했다. 능을 조성한 다음 태조는 왕비의 극락왕생을 위한 원찰을 창건했다. 그것이 흥천사이다. 태조의 원찰 창건은 정치적 모험이었다. 자신이 세운 왕조의 이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불교계에 반감을 가진 인물들이 세운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성 안에 사찰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실제 대단한 인물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어찌까지 있었던 신앙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낙성됐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기록에 의하면 절은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세워졌다고 한다. 황화방이 어딘가. 그곳을 알려



흥천사 일주문

이기 위해 화려하게 했다. 흥천사는 170여 칸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능조차 도성 안에 두려웠던 태조의 지극한 사랑이 담겼으니 당대의 최고였을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 압권은 정릉1년(1399) 10월에 조성된 사리전(舍利殿)이었다. 5층으로 지어진 사리전은 크기도 웅대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잘 보였다고 한다. 세종 5년(1423) 사신이 흥천사를 구경하고 사리전 높은 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산세나 물 흐름이 모두 음악의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하늘을 만든 도읍이라”한 것을 보면 말이다.

지금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흥천사는 어디쯤 있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절은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세워졌다고 한다. 황화방이 어딘가. 그곳을 알려

면 영조 때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영조 45년(1769) 11월 임금이 황화방 명례궁(明禮宮)에 거동했다고 전해진다. 명례궁은 인조가 즉위한 곳으로 본래의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이었다. 이곳이 고종이 순종에게 선위하고 머물면서 덕수궁이라 했다. 정릉과 흥천사 모두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그곳이 정동(貞洞)인 것도 능 이름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흥천사와 지금 탑골공원에 원각사가 중부 경행방(慶幸坊), 그리고 교동사찰 흥덕사가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어 세 사찰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했다.

임금의 사랑으로 크고 화려하게 시작한 흥천사지만 조선조의 배불의 세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 종파 축소, 참배 금지 등이 계속됐다. 그런 조치로 폐사에 이르지 않았지만 화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연산 10년(1504) 범람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급격하게 쇠락해졌다. 그나마 화마를 모면했던 사리전은 중종 5년(1510) 3월 28일 흥천사의 보물과 경문을 훔치던 유생들의 방화로 전소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중종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7년(1512) 성 안의 흥덕, 흥천, 월각 등 세 폐사의 땅을 사대부들에게 갈라주는 대간의 건의에 흥천사 땅을 나누어준 것을 보면 역시 배불의 군주이다.

흥천사는 정릉의 원찰로 지어져 화재로 사라졌지만 정릉 때문에 다시 생겨날 수 있었다. 왕후는 자신의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야 했고, 자신도 파헤쳐 도성 밖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태종은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왕후를 9년(1409) 삼각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정릉은 오래 동안 방치됐다. 그런 정릉이 제 모습을 찾은 것은 선조 때였다. 즉위 9년(1576) 정릉을 복구하고 왕후의 제사를 지냈다. 이후 현종 10년(1669) 송시열 등의 청원으로 왕후의 제사날을 새삼 기리면서 자연히 원찰도 논의됐다.

당시 정릉 앞에 있는 신흥암이 능과 너무 가깝고 작아 조금 떨어진 함취정(含翠亭)터로 옮기고 신흥사(新興寺)라 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원찰은 복원된 것이다. 정조 18년(1794)에 성민(聖敏)과 경신(敬信) 두 스님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창했다. 이후 신흥사로 불리다가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이 중창불사를 지원하면서 원래 이름인 ‘흥천사’ 편액을 내렸다. 지금 만세루에 걸려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흥사로 불렀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 주변 식당은 회갑잔치가 빈번하게 열려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요릿집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요즘 지역인터넷에서 흥천사로 소개되고 부르는 것을 보니 비로소 본래의 이름을 찾은 듯하다. 지하에서 온갖 역경을 겪은 왕후도 600년 만에 살포시 미소 지을 것 같다.



김경전/지각대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테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봉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삼환양초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